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피해자 측 “구형 더 높았다면”

약물에 취해 행인 치고 도주한 혐의 피해자 전치 24주...115일 만에 숨겨진 檢 “잘못 숨기기 급급” 징역 20년 구형 1심 “마약 투약에 무고한 사람 희생”

수면 마취약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친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

했다”며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있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죄는 통상의 운전이

아닌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구형과 같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검찰의 구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마약 투약 의혹과 도주,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인정됐다”며 “판사님께서 검사 구형을 참작해 선고형을 정하셨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결심 공판 이후 합의를 위해 당사자의 부모님들께서 만날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온 바는 있었다”면서도 “(신씨가 끝

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면가 잘못을 뉘우치는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님들께선 여전히 큰 상심에 처해있다”며 “가족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받자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

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사)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기 잘못을 숨기기 급급한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선욱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제설작업 대설특보가 발효된 24일 오전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는 치우기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 공무원 또 만취운전...집행유예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한 채 차를 몬 광주 자치구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자치구 소속 임기제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1시39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 상태로 200m가량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벌금형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자치구는 지난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씨에 대해 징역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희연기자

곡성서 버섯공장 화재...4시간 30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지난 24일 오전 12시 24분께 전남 곡성군 석곡면 한 버섯공장에서 불이났다. 화재로 인해 공장 3개동 중 1개동이 전소됐 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4시간 30여분만인 오전 4시 55분께 진화됐다. 공장에는 근로자 등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백미러 안 접은 자동차만 골라 턴 40대 구속

후사경이 꺾진 주차 차량만 골라 금품을 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새벽시간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새벽에 전남 나주시 일대 상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6대에서 현금 등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꺾진 차량은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을 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죄도 조사한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